

집중조명 - 서체가격 적정한가

# FONT

‘서체’ 고객은 붕?

출력업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서체업체 “초창기비해 합리적 가격”

척 존스를 기억하며

**The Best Films Never Nominated**

척 존스를 기억하며

사람과 함께 점찍하면서도 색지한 논쟁거리를 찾아 헤맸  
생각은 전혀 하려 하지 않는. 그러 개이 집단이다

제작 사무실, 로펌, 집  
에 쓰는 스타 고객들

의

IZ

by David La Chap

그의 사업 장소는  
수입의 많은 부분

# ‘서체’ 고객은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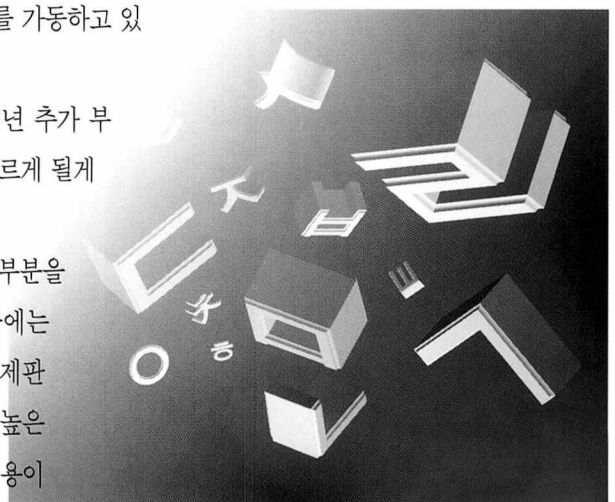
서체가 편집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다. 이에따라 고품질의 다양한 인쇄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서체가 기여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창성과 미적인 서체를 취향과 용도에 따라 우리의 구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데는 서체회사들의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서체회사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국내 서체 시장에 뿌리를 내리면서 현재 2,000여 가지의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기까지 보여줬던 개발정신은 희미해지고 수익성 창출에만 매달리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 인쇄·제판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서체회사가 인쇄·제판업계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서체가격 산정과 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쇄·제판업계의 현실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생산체조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출력단가나 인쇄단가는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서체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등 고비용·저효율 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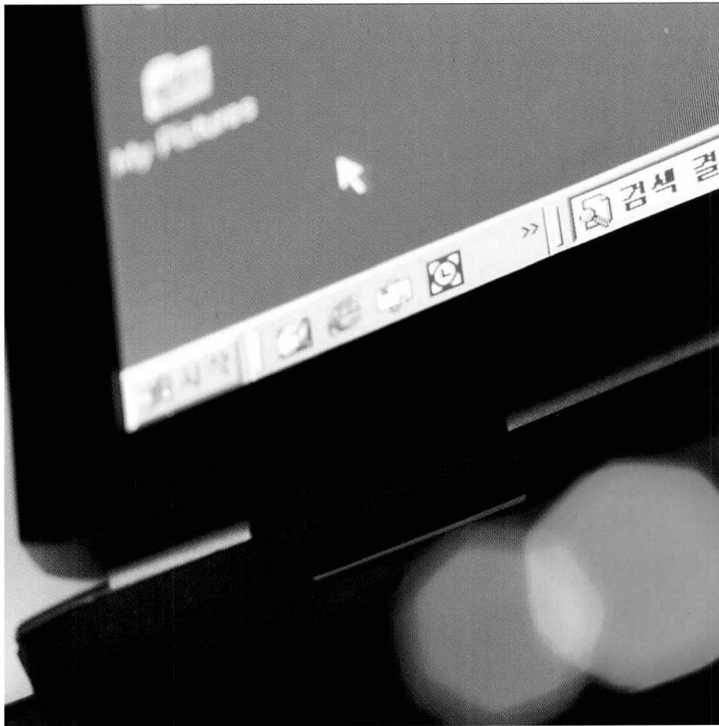
한 출력업체의 경우 총 3억원을 들여 현재 두대의 필름출력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중 서체비용이 7천6백만원에 이른다.

장비가격의 25%가 서체도입비용인 셈이다. 여기에 앞으로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 서체비용을 합산하면 몇년 지나지 않아 장비 값을 앞지르게 될게 뻔하다.

결국 출력업체들은 비싼 서체비용으로 인해 매출이익의 상당부분을 서체회사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에는 CTP장비의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체가격에 대한 인쇄·제판업계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필름출력기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서체가격 산정 때문이다. CTP장비 도입시 부담해야하는 서체비용이



## 집중조명 - 서체가격 적정한가



6천만원에서 8천만원대로 필름출력기의 2배에 이르고 있어 일부 업체들은 장비도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 CTP 서체비용 너무 비싸

인쇄·제판업계는 서체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한국화상정보제판조합이 한글서체와 관련해 일방적 가격산정과 서비스 미비 등 서체회사들의 불합리한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약관 및 불공정 행위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됨에 따라 제판업체들의 시정조치 요구는 유야무야됐다.

다만 소득이 있었다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CTP장비와 필름출력기의 서체가격 차이에 대해 별다른 파벌변화가 없는데 가격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쌍방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이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지적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서체회사에서 CTP장비와 필름출력기의 서체가격을 동일화하는 등

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판조합의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분석과 법적인 지식없이 현상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데 그쳐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체회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체회사들의 기세만 올려준 꼴이 됐다.

그럼 서체가격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서체가격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출력업체나 인쇄업체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 종전에 비해 매우 비싸며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체가격이 수 년전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는 데는 모두 인정하는 바다.

문제는 CTP장비의 서체비용과 서체 추가도입, A/S비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체회사에서는 동일화했지만 아직까지 필름출력기와 CTP장비 사용에 따른 서체비용 차이가 크다. 서체회사의 서체가격표를 보면 CTP장비의 서체가격이 소형필름출력기의 두배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서체 추가도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A사 서체의 경우, CTP장비를 기준으로 일괄 구매하면 1천6백만원대의 비용이 든다. 만약 종전부터 서체를 사용하던 업체가 팩키지별로 구입한다면 일괄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 부담이 오히려 많다는 의미이다.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은 A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체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서체회사들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A/S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체회사 당 A/S비용은 보통 20~30만원으로 한 출력업체가 5개 서체회사의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A/S비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한 기존 필름출력기에서 CTP장비로 서체를 이전할 경우 평균적으로 각 서체회사별로 400만원대의 이전비용을 주게된다.

립을 별도로 추가할 경우 별도의 서체를 구입하지 않는데

# 제판조합, 불공정거래 시정요구 무산

## 적정가격산정 · 서비스 강화 절실

도 60~70%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계약서 상에 1폰트 1엔진이라는 규약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은 쉽지 않지만 사용료가 너무 비싼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불합리한 공급체계 시정되어야

일각에서는 출력업체들을 슈퍼마켓으로 비유하고 있다.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량의 서체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서체라 해도 사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보유한 서체를 고객에게 맞추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에만 그쳐 효율성이 또한 떨어지고 있다. 기획실 등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량의 서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국내에는 10여개의 서체회사들이 있으나 이중 특수 서체회사를 제외한 6개업체의 서체가 출판물, 광고물, 신문 등의 모든 인쇄매체에 공급되고 있어 사실상 서체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 업체가 CTP장비를 도입했다고 가정할 때 주요 6개 서체회사의 서체를 샀을 때 드는 비용은 전 종을 기준으로 적게는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후 앞으로 매년 서체를 추가하게 되면 연간 1,500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들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년만 지나면 장비가격에 맞먹는 비용을 고스란히 서체비용으로 투자하게 된다.

서체회사에서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국내 서체비용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일본의 경우 필요한 서체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체 추가시 드는 비용이 국내와는 달리 저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단순한 초기 서체비용으로만 비교하기는 억지라는 얘기다. 특히 국내 서체회사들은 패키지라는 영업전략을 이용해 불필요한 서체까지 끼워 팔고 있다. 결국 상품가치가 없는 실패작의 개발 비용을 서체 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체개발을 위해 서체회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다양한 서체개발을 통해 업계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나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인상하는 등의 모습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 설정 및 인상, 서비스 부재 등은 인쇄·제판업계의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가격산정과 함께 서비스강화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있다면 인쇄·제판업계의 불만은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김광륜차장〉

